

교육

6월 모의고사 앞둔 수험생 오답노트 작성법

틀린 이유 반드시 기록하고 공부하는 순서 맞춰 정리를

수학능력시험이 200일도 남지 않았다. 오는 6월 모의평가는 수능을 대비해 자신의 중간 위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다.

6월 모의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공부 계획과 희망하는 대학을 정하고 수시와 정시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의평가에서 틀린 문제들은 다시 보고 오답노트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틀린 문제의 해설을 보고 교재를 이해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오답노트를 통해 틀린 문제에 대한 풀이 과정을 되돌아 보고 어디서 잘못 생각해서 틀리게 됐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또한 문제의 유형과 출제자가 요구하는 사고의 과정을 오답노트에 적어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략법을 메모해 두어야 한다. 일선 고교의 진학교사들이 '잘 만든 오답노트 하나가 열 참고서 안 부럽다'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입시전문업체 진학사의 도움으로 오답노트 작성법을 살펴봤다.

◇오답유형 나눠 대응 달리해야 =오답을 정리할 때 기계적으로 문제와 답을 옮겨적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틀린 이유에 대해 정리해야 한다. 이는 틀린 이유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답유형은 크게 4개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전혀 감이 오지 않아 틀린 문제 ▲풀이 방법을 잘못 생각해 틀린 문제 ▲출제의도는 제대로 파악했지만 잘못 이해해 틀린 문제 ▲의도·방법은 다 알지만 실수로 틀린 문제 등이다.

각자의 오답 유형마다 정리방법이 달라야 한다. 전혀 감이 오지 않았던 오답은 옆에 기본개념을, 방법을 잘못 생각한 문제는 왜 오해했는지를 적어 두어야 한다.

정답을 맞힌 문제라도 제대로 알고 있는 문제인지 자문해 보고, 만약 개념 파악 등이 안된 문제라면 오답노트에 기록해야 한다.

◇실제 공부하는 순서에 맞춰 정리해야 =6월 모의고사 뿐만 아니라 교육청, 평가원 등 각종 모의고사 기출문제 및 수능기출 문제 등에서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먼저 지금까지 자신이 정리해 놓은 오답노트에 문제가 어떤 기준으로 정렬돼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문제집과 같은 순서이거나 문제를 푼 날짜 순으로 정렬돼 있다면 그 오답노트는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순으로 오답노트를 정리하게 되면 실제 공부하는 순서와 맞지 않게 된다.

교과 공부는 주로 학교 수업 등에 맞춰 교과서 단원별로 이뤄지므로 이에 맞춰야 한다.

또 오답노트를 만든다며 형형색색의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색연필로 그림까지 그리며 꾸미는 데 치중하는 학생들이 많다.

오답노트를 예쁘게 만들면 보기는 좋지만 공부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그 시간에 오답노트를 한번 더 살펴보는 게 효과적이다.

오답노트 종류 선택도 중요하다. 보통 상위권 학생의 경우 한 문제집에서 틀리는 문제가 10% 정도 된다. 그러나 그 이하 수준의 학생들은 20~40% 이상 틀리기 마련이다.

틀리는 문제가 적은 학생들은 줄도트나 스프링노트에 오답을 정리해도 괜찮지만, 틀리는 문제가 많으면 주제별로 표시가 가능한 바인더형 노트를 추천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꿈을 갖고 미래 향해 마음껏 날개 펴세요”

광주 양산중 '나의 길 찾기 프로젝트' 전문 직업인 초청 강연



박중오 전남대로봇연구소장이 학생들에게 과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로봇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 양산중학교(교장 박중호)는 최근 전문 직업인을 초청해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시간을 주는 '진로의 날' 행사를 가졌다.

'꿈을 갖고 미래 향해 마음껏 날개 펴자'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학생들이 선택한 코너에서 전문직업인과 함께 각자의 진로를 탐색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중오 전남대로봇연구소장과 전문무용가 박진수 씨, 전북요리연구가 임영란 씨, 광주시립미술관 큐레이터 황유정 씨, MBC아카데미 뉴티스쿨 최명수 씨,

조선대음악교육과 김지현교수 등이 참여해 해당 분야 직업의 세계를 학생들에게 알기 쉽게 소개했다.

학생들은 전문가들의 강의와 함께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커리어 플랜(인생 목표를 달성하기까지의 구체적인 진로계획 설계)

▲진로 글짓기(진로 목표를 이룬 후 자신의 삶의 모습 또는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내용이나 가상 코리터, 미래의 꿈 포스터) 등의 활동을 하며 흥미진진한 시간을 보냈다.

박중호 양산중 교장은 "전문가들과 학생들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학생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편협한 진로 인식을 바꾸고,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중심으로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임상교육관·치과병원

해외 설계팀 벤치마킹 전학 줄이어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오희균)과 치과병원(병원장 박상원)이 해외 치과대학 교수와 치과 건축 설계팀의 벤치마킹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중국 대련의과대학 구강의학원 미국 원장을 비롯한 교수 방문단과 일본 치과 전문 건축사무소 설계팀 등 8명이 최근 2박3일 일정으로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과병원을 방문했다.

이들 중국·일본 방문단은 환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설계된 최첨단 치과병원을 먼저 견학했다. 이어 자연 친화적이며 미래형·개방형 건물로 설계된 첨단 의료장비와 선진화된 임상교육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임상교육관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중국 대련의과대학 구강의학원은 첨단시설을 갖춘 치과병원과 임상교육 시설을 갖춘 건물을 설계하기 위해 일본 건축설계팀에게 설계를 의뢰했다.

대련대학 미국 원장은 "지금까



지 방문한 많은 치과병원과 치과대학 중에서 전남대 치과병원과 임상교육관이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돼, 이번에도 보직교수들과 함께 설계전담팀을 이끌고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몽골 울란바트르 치과대학 교수들도 치과병원 및 치과대학 건물설계를 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남대 치과병원과 임상교육관을 견학했으며, 미국 Pacific 치과대학측도 치과병원과 임상교육관 설계에 대해 의견을 요청하는 등 외국 치과대학에서 전남대학교 치과병원과 임상교육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내일 중고등학생 과학경시대회

광주시교육청이 29일 광주 화성중학교에서 제 22회 광주시 중·고등학교 과학경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전국 13개 시·도 교육

청에서 공동 개발한 시험 문제를 사용하여, 중학교 과학분야와 고등학교 생·과학경시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는 전국 13개 시·도 교육

청과 과학분야에는 251명 참가하며, 고등학교는 각 영역별로 학교당 1명씩 440명의 학생이 실력을 겨루게 된다. 성적 우수 학생에게는 교육감 표창장이 수여되며, 수상 결과는 내달 불라·화학·생물·지구과학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박진표기자 lucky@

재외동포 학생

연수사업 운영기관

광주교대 선정

광주교육대학교(총장 박남기)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국제교육원(NIIE)이 주관하는 2010년도 재외동포 학생 모국방문 연수사업 운영기관에 단독으로 선정됐다.

이번 연수는 세계 주요 국가의 미래 지도자가 될 재외동포 초등학생을 초청해 모국의 경제·사회·문화 전반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모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모국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연수기간은 오는 7월 5일부터 11일까지 6박 7일에 걸쳐 광주교육대에서 진행된다. 연수인원은 세계 12 지역 초등학생 70명과 인솔교사 7명을 포함하여 총 77명이며, 연수 협력학교로는 광주교육대 광주부설초등학교와 광주송원초등학교가 참여한다.

광주교육대는 이번 연수를 위해 광양 포스코 방문, 초등 학교 수업 참관 및 한국 초등 학교 친구 사귀기, 1박2일 홈스테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채희종기자 chae@



올해 실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6월 모의평가가 오는 6월 10일 치러진다. 사진은 지난해 전남여고 3학년 학생들이 수능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Advertisement section titled '작은남은 큰 기쁨' (Small gift is a big joy)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cludes categories like '개업·성업 안내' (Opening/Business Announcement), '에이스공인중개사' (E-ace Real Estate), '우정설령탕' (Woojeong Seolleongtang), '친구식당' (Friend Restaurant), '삼호갤러리' (Samho Gallery), '비아공인중개사' (Bia Real Estate), '장백산' (Jangbaeksan), '(주)에스케이광주지점' (SK Co. Ltd. Gwangju Branch), '이내과의원' (Inae Clinic), '베네슈 공인중개사' (Beneshe Real Estate), '(유)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Happy Lunch), '상무1등우체국' (Sangmu 1st Class Post Office), '뚝뚝오리' (Ttok-ttok Ori), '월출산오리나라' (Wolchulsan Ori Country), '신촌요양병원' (Shincheon Yoyang Hospital), '아식스용봉점' (A-sik-seu Yongbeong Branch), '오색갈비' (Osae Galbi), '모정' (Mojung), '광주번역통역' (Gwangju Translation/Interpretation), '버들호프' (Budeulhope), '상하이반점' (Shanghai Banjeom), '홍궁' (Honggung), '한라SMC산업' (Hanra SMC Industry), '핸디페이' (Handy Pay), '회사랑' (Company), '진영특수금속' (Jinyeong Special Metals), '모시떡집' (Moshi Tteokjeog), '대림학생복' (Daerim Student Uniforms), '가자주류' (Gajajuju), '장수곱창전골' (Jangsu Gopchang Jeongol), '노세요양병원' (Nose Yoyang Hospital), '편안장기요양센터' (Pyeon-an Janggi Yoyang Center), '서울화방·화랑' (Seoul Hwabang/Hwarang), '가고당' (Gagodang), '아베스두피탈모클리닉' (Ave's Du-pital Moclinc), '성모사랑노인방문요양센터' (Sungmo Love Elderly Home-visit Yoyang Center).